

제주 43장편소설의 설화수용양상 연구

이 대 영*

<차례>

- I. 서론
- II. 제주설화의 수용양상
 - 1. 긍정형 인물창조
 - 2. 제주인의 한과 저항의식
 - 3. 영웅탄생의 간절함과 좌절감
- III. 모순의 역사, 타자화 된 삶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제주 43장편소설에 반영된 제주 설화양상을 고찰하고 그 의미와 작품의 변별적 특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장편소설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 현길언의 『한라산』,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소설들은 서사전개에 제주설화를 부분 또는 전체 차용하여 제주와 제주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제를 심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현길언은 『한라산』에서, '소문으로서의 문학'이 제주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준 중요한 힘이었음을 이야기 한다. 작가는 '토산당신'을 통하여 한 많은 제주사람들의 모습을, '광정당신'의 내력담을 통해 권력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아기장수설화'의 내용 전체를 배치하는 액자형 서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작가는 이 설화를 통해 제주사람들의 의식의 근저에 자리한 영웅탄생의 간절함과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김동정 장군'과 '김방경 설화'를 긴 세월 쫓기고 억눌리며 살아 온 제주도 사람들 자신의 소망과 비원의 표현으로 수용한다.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은 '아기장수설화', '설문데할망설화', '광정당설화'를 서사전개에 참여시킨다. 이들 설화는 강인성과 비범함을 갖춘 작중인물을 창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제주 43장편소설에 차용된 제주설화는 제주사람들의 배타의식과 타자의식, 저항의식을 드러내는 유용한 문학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 연구원

주제어: 제주 4.3장편소설, 제주설화, 배타의식, 저항의식, 타자의식

I. 서론

낮선 시선으로 일상을 현시하는 문학은 현재는 물론 과거와 관련을 맺는다. 문학은 과거를 반추함으로써 현재 또는 존재를 성찰하고, 흔들리는 가치 개념을 정립하거나 존재와 세계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문학작품에서 역사적 주제와 소재 혹은 인물들을 취급할 때 비로소 문학과 현실 간의 보완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생성된다.¹⁾ 문학작품은 사실성을 기저로 하는 역사서술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역사적 사실과 문학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 배경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자리한다. 그 거리 사이에 존재하는 내용들은 작가의 역사의식 내지 세계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어 재현된다. 과거의 사실성에 근접한 역사소설과는 다르게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여 허구적 기제들을 이용하고 있는 현대소설의 경우 그 간극은 더욱 넓어진다. 그러나 과거를 현재화 하여 올곧은 역사를 정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작가의 의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과거를 현재화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작가는 과거를 현재화함으로써 거시사에 의해, 혹은 권력의 담론에 의해 굴절되고 왜곡된 내용이 없는가를 성찰하고 역사의 정직성을 회복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제주 43사건은 이념의 갈등으로 얼룩진 현대사와 오늘의 분단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대사의 이념과 갈등, 섬사람들의 타자의식, 제주도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단서들이 앙금처럼 남아 있는 상처의 땅이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확한 희생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25,000명 내지 3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군

1)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문학과 역사』, 예림기획, 2000, p.9

정 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1960년대 이전까지,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 반란이고 군정에 의하여 피살된 자는 모두 무장유격대원 혹은, 그 동조자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나아가 제주 4.3사건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소련이나 북한, 또는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 제주도를 비롯해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기 위해 공산도배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되어 왔다.²⁾

지난한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작·간접적으로 묵과되었던 이 사건은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진실성을 규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후,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됨으로써 그 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는 하나 제주 4.3사건³⁾, 제주 4.3항쟁⁴⁾, 제주 4.3폭동⁵⁾, 제주 4.3민주항쟁⁶⁾ 등의 다양한 용어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4.3사건의 중심에 제주도민의 비극적 희생이 자리한 가운데, 4.3의 뒤에 붙는 명칭은 공적 인식의 변화를 사회가 수용하는 정도의 개인·공동체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불렸음을 알 수 있다.⁷⁾

-
- 2)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 p.35.
 - 3)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
박찬식, 「제주 4.3사건 관련 목포형무소 제소자 연구」, 『역사학연구』제30집, 2007.
박찬식, 「북한의 제주 4.3사건 인식」, 『한국근현대사 연구』제3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허상수, 「제주 4.3사건의 진상과 정부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동향과 전망』 통권 제61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4.
강창일, 「뒤틀린 한국현대사와 제주 4.3사건」, 『역사와 세계』 제27집, 효원사학회, 2003.
조남현, 『제주 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 4) 김종민, 「제주 4.3항쟁」, 《역사비평》 통권 42호, 역사비평사, 1998.
양정심, 「제주 4.3항쟁에 대한 연구 동향」, 『역사와 현실』 27, 1998.
 - 5) 김남식, 「제주도 4.3폭동」, 『통일한국』제6권 제12호, 평화문제연구소, 19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967.
 - 6) 김유정, 「제주 4.3민주항쟁과 미술」, 『미술세계』 통권 113호, 미술세계, 1994.
고창훈, 「제주 4.3민주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 7) 박찬식, 「'4.3'의 공적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 연구』제41집, 한국근

문학에서 제주 4.3사건을 소재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작품은 현기영의 「순이 삼촌」⁸⁾이다. 이 소설은 1949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400여 명의 주민이 군인에 의해 학살된 ‘북촌리 사건’을 작품화 하여 여론화 하고 진실성 규명에 기여한 바 있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 이산하의 「한라산」⁹⁾의 필화 사건이 보여주듯, 금기의 영역이었던 제주 4.3사건은 2000년 들어 진실규명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다양한 문학 장르로 창작되기에 이른다.

그동안 제주 4.3문학은 개별 작가나 작품에 대한 연구 외에 주제적 접근¹⁰⁾, 전개양상에 관한 포괄적 고찰¹¹⁾, 어학적 접근¹²⁾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단편소설 중심으로 장편소설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설화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려는 연구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장편소설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¹³⁾, 현길언의 『한라산』¹⁴⁾,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¹⁵⁾을 중심으로 설화수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 작품이 문학의 허구성을 활용하여 역사적 사실에 어떻게 접근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작가 또는 작품의 변별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사학회, 2007. p.194.

- 8)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 1979.
- 9) 이산하, 「한라산」, 『녹두서평』, 1987. 봄.
- 10) 문혜원, 「4.3을 소재로 한 시들의 유형과 특징」, 『제주도연구』 19권, 제주학회, 2001. 이대성, 「제주도 4.3을 주제로 한 작품」, 『국민어문연구』 제2집,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9.
- 11) 김동윤,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 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김동윤, 「2000년대 4.3문학의 점검」, 《제주작가》, 제33호, 제주작가회의, 2011. 고명철, 「4.3소설의 현재적 좌표」,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 12) 이명원, 「4.3과 제주 방언의 의미작용」, 『제주도연구』 제19집, 제주학회, 2001. 정선태, 「표준어의 점령, 지역어의 내부 식민지화」, 『어문학논총』 제27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8.
- 13)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상·중·하』, 한길사, 1991.
- 14) 현길언, 『한라산 1·2·3』, 문학과 지성사, 1995.
- 15)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2』, 열림원, 2003.

II. 제주설화의 수용 양상

소설은 중층적으로 반복되는 이미지의 연결이나 미학적 장치를 통해 주제를 심화시킨다. 그러나 역사적 소재를 사용할 경우 ‘허구성’보다는 ‘사실성’의 영역에 기초하여 서사화 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 때문에 작가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인물의 심리나 사회적 배경, 고증과 사료 등을 통하여 작품의 껍진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기도 한다. 우리는 소설작품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역사적 사실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작품은 역사의 주체이며 동시에 객체인 수용자에 의해서만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수용자의 시각에 의해 역사화 되기 때문이다.¹⁶⁾ 그러기에 작가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사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거나 문학적 기제를 활용하여 사실을 위장하기도 한다. 장편소설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 현길언의 『한라산』,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 서사기법은 설화문학의 차용이라 할 수 있다.

1. 긍정형 인물창조

소설 『한라산의 노을』은 1947년 3월 1일,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진행된 3.1절 기념행사로부터 1949년 6월 초, 인민무장대 사령 이덕구가 사망한 시점을 소설의 시간으로 하고 있다. 작가는 “나는 철저하게 일지 위주로 이야기를 끝고 나갔다.”, “그 문혀진 역사의 사실성이 바르게 살아나도록 애쓰는 건 그야말로 재미없고 지겨운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¹⁷⁾ 이는 곧, 작가가 역사의 재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성의 결함을 극복하려 노력했음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작가는 제주인의 성정과 의식, 일제의 학정, 4.3사건의 발생 경위와 전개과정, 이념의 비극성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제주인 또는 제주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작중인물을 창조하기 위해 제주설화를

16)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문학과 역사』, 앞의 책, p.71.

17)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하』, 앞의 책 p.751.

몇 가지 설화의 기능소로 축소, 차용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라산의 노을』에서, 우리는 ‘아기장수설화’, ‘설문데할망설화’, ‘광정당설화’를 발견할 수 있다.

옛날 김순덕이는 어릴 때 하도 야무져서, 동네 어른들은 말하곤 했다. 저년이 고추만 달랑 나시민 큰 일 헐건디. 옛날 김순덕이 조상 중에는 날개 달린 장수도 있었단다. 날개 달린 아기가 태어나면 장차 역적이 된다고 나라에서는 죽이라고 했다던가. 제 자식을 차마 죽일 수 없는 게 부모의 맘이라. 아기 겨드랑이를 헤치고 날개를 탁 잘라버리면, 아이는 비범한 힘을 잃어버렸다고 했다.¹⁸⁾

문득 발 밑을 보니 마치 자신이 똥을 여기저기 짠 것처럼, 그만그만한 오름이 셀 수도 없이 솟았고 다리는 겨우 시작만 한 채 한 뼘도 앞으로 나가질 않았다. 하하하 웃다가, 눈물이 나도록 웃다가 너털너털한 치마를 들쳐보곤 제주 사람들아, 내 무명속곳 한 벌만 해도라 내 기어이 다리를 놓고말고. 김순덕에게 설문데할망 혼이 빙의했는지도 모른다.¹⁹⁾

광정당은 성안 광양당과 한형제로서 한라산신이지. 옛날 고려적에 중국 홍종단이 제주에 들어와서 큰 인물이 나지 못하게 몰혈 지혈을 다 떠버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배를 타서 차귀도 앞바다쯤 나가니 광양당이 매로 변해서 날아가 호종단일 물에 빠뜨려 죽였지. 광정당은 선정을 베풀지 않은 목민관이 앞을 지나려면 말발을 잡자기 절게 하기도 했던 제주섬 수호신이라.²⁰⁾

『한라산의 노을』에서 차용된 아기장수설화, 설문데할망설화, 광정당설화는 설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서사전개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작중인물 김순덕 또는 이재수를 긍정적 인물로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작중인물 김순덕은 아기장수 설화와 설문데할망 설화를 통해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지니게 되며, 이재수는 광정당설화를 통해 선정(善政)을 향한 반란군 수장으로서의 인물로 창조된다.

김순덕은 열일곱 살에 약혼한 남자가 배를 타고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

18)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상』, 앞의 책 p.42.

19)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상』, 앞의 책 p.48.

20)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상』, 앞의 책 p.95.

에 휩쓸려 생사를 모르게 되자, 옹골차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강인한 여성이다. 김순덕은 3.1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대청단원과 경찰에 연행되어 고초를 당하지만 산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적이다. 그리고 “평등세상,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 제주 사람 평안하게 사는 섬”²¹⁾을 만들기 위해 한라산에 들어가 이덕구를 돕는다. 작가는 김순덕을 ‘설문데할망의 혼’이 빙의한, ‘아기장수설화 속의 장수’와 같은 비범한 인물로 창조하고 있다.

광정당설화는 한라산 산신인 광정당이 선정을 베풀지 않는 목민관을 징계하는 제주섬의 수호신임을 이야기 한다. 여기서 목민관이란 물 혹은 조정에서 파견된 인물로 외세의 성격을 지닌다. 외세의 탄압에 힘없는 민중이 저항하는 방법은 제도 외적 기제에 의탁하는 방법이다. 가장 효율적인 기제가 바로 구비전승과 상징적 의미를 지닌 설화이다. 광정당 산신을 통해 외세 또는 폭정관을 징계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무하고자 했던 제주도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재수는 선정을 향한 반란군 수장으로서의 긍정형 인물로 창조된다.

작가는 비록 민중항쟁인 ‘이재수의 난’이 실패로 끝났지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이야기 한다. 희생을 통해 얻은 “불의를 보면 일어서는 곳곳한 정신을,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얻는 정신”이 제주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는 큰 유산임을 서술한다. 이와 같이 작가는 제주 설화를 서사담론에 참여시켜 비범하고 강인한 작중인물을 창조하고, 제주사람들의 강인한 정신과 실천력을 보여주는데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2. 제주인의 한과 저항의식

『한라산 1·2·3』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전부터 4.3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대내·외적 상황 및 사건들을 제주도를 중심으로 서사화 하고 있다. 이 소설은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의 순진성과 타자의식, 이상주의자나 모험주의자들의 명분론,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 이념의 비극성, 권력을 향한 민중의 저항의식 등을 포괄하고 있다.

21)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상』, 앞의 책 p.213.

“해방공간의 역사적 격동기를 살아온 주변부 사람들의 삶의 실상과 그 진실을 찾아내는 데 관심”²²⁾을 가졌던 작가에게 4.3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이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방법으로 작가가 연구하고 선택한 것이 소설의 설화적 차용이다.

소설에 제주의 무속신앙과 설화를 차용하여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현길언은 『한라산』에서, ‘소문으로서의 문학’이 제주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준 중요한 힘이었음을 이야기 한다.²³⁾ 설화를 소설 전체의 구조로 차용²⁴⁾하기도 하는 작가는 제주도의 설화가 단순한 구비전승물이 아니라 특수한 역사상황에 위치한 제주사람들의 일상을 현시해 주는 살아 있는 삶의 현장으로 수용한다.

소설 『한라산』에서는 ‘토산당신’²⁵⁾과 ‘광정당신’²⁶⁾의 내력담이 부분적인 서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작가는 ‘토산당신’의 내력을 한(恨) 많은 제주도 여인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 ㉠ 육지에서 추방당한 한 많은 여신이 제주도에 도착한다.
- ㉡ 바닷가에서 일본 사내들에게 겁탈당해 가장 한 많은 여신이 된다.
- ㉢ 그 한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 ㉣ 그 신을 잘 섬기면 큰 복을 얻지만 배신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토산당신은 육지에서 추방당한 한(恨) 많은 여신으로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바닷가에서 일본 사내들에게 겁탈을 당한다. 이 여신의 한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힘을 발휘하여 신을 잘 섬기면 복을 얻지만 배신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승되고 있다.

22) 현길언, 『한라산 1』, 앞의 책, p.311.
 23) 현길언, 『한라산 1』, 앞의 책, p.237.
 24) 김동윤, 「현길언 소설의 제주설화 수용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제3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p.188.
 25) 현길언, 『한라산 1』, 앞의 책, p.211.
 26) 현길언, 『한라산 1』, 앞의 책, p.236.

작가는 이러한 서사구조를 차용하여 한 많은 제주도의 여인상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제주사람들의 의식을 강조한다. 나아가 한 많은 여신의 모습을 변방사람들의 삶의 한 양식, 그리고 ‘조선인의 한’으로 의미를 확대해 나간다.

작가는 한국인이면서 일본군 정보장교인 최세욱의 일본인 여성 후미코를 향한 성적 욕망을 한스러운 여신을 겁탈했던 일본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환치시킨다. 이와 같이 ‘토산당신’의 서사적 차용은 한 많은 제주 여인과 주변부 사람들, 조선인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한의 이미지를 창출하며 작가의 반일감정을 드러내는 서사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탁기가 김상구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의 「광정당기」는 서사적 틀이나 내용의 변화 없이 그대로 차용된다.

- ㉠ 이목사가 순력 도중 광정당에 이르러 하마하지 않아 말의 다리가 부러짐.
- ㉡ 곳을 하는 데서 뱀이 나와 죽여 태우자 장끼가 됨.
- ㉢ 어느 날 목사의 꿈에 골충귀신이 나타나 담을 쌓아 달라고 하자 그리해 주고, 골충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서 무사히 육지로 감.
- ㉣ 고향집에 가 보니 아들 형제가 죽어 있었음.²⁷⁾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이형상은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주의 누속을 개혁하는 정치를 이행하였다. 석전제를 행하던 성전을 수리하여 학습의 장소로 사용하였고 동성혼인 풍속 금지, 신사의 소각, 척불숭유 등의 정책을 이행했다고 전해진다. 「광정당기」에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이형상 목사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이형상 목사의 행위는 제주사람들의 관습과 신앙을 억압하는 정치였기에 광정당기의 내용도 부정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형상 목사의 한 쪽 발이 병신이 되고 아들 삼형제가 당 귀신, 절 귀신들에 의해 살해된 내용이 그것이다. 작가는 김상구의 의식을 빌어 제주 사람들이 절대 권력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문으로서의 문학’이었음을 강조한다. ‘소문으로서의 문학’은 제주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준 중요한 힘이었으며 관에 대한 저항의식이 제주 사람들의 의식 근저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7)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703.

이러한 소설의 설화적 차용은 작중인물 최인택의 발화를 통해 ‘구좌면 김녕리의 뱀굴 전설’로 이어진다. 「김녕뱀굴」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김녕리 동굴에 큰 뱀이 살고 있었음
- (㉡) 뱀이 흉년이 들게 하므로 주민들은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쳐 굿을 했음.
- (㉢) 종종 때 서련이 판관으로 부임하여 굿판에 나타난 뱀을 죽임
- (㉣) 무당이 서련에게 화를 피해 달아나게 하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함.
- (㉤) 피비가 온다는 군사의 외침에 무심코 뒤돌아본 서련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음.²⁸⁾

소설 『한라산』에서, 김녕뱀굴 이야기에 대한 작가의 해석은 작중인물 최인택의 발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그는 김녕뱀굴 이야기처럼 뱀을 죽인 판관이 다시 그 요괴에게 복수를 당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조선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을 강조한다. 작가는 거짓소문으로 전파된 이야기가 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구비전승 되었다고 보고 있다. 판관이 뱀에게 복수를 당했다는 내용은 실제 판관이 죽은 이유와 관계없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맺혀 있던 뱀신을 퇴치한 판관에 대한 저주스런 감정과 들어맞았기 때문에 사실화 되었다는 설명이다. 뱀을 마을 사람들이 신앙하는 마을의 신으로 환치할 때, 판관은 뱀의 독기로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제주 백성의 저주로 죽은 것이다. 이는 곧 “유교 가치관에 의해 살았던 육지부 상층계층, 곧 양반들의 의식과 그러한 가치를 거부하고 자기네의 가치를 간직하고 살아 온 주변 지역 제주 사람들과의 갈등”²⁹⁾이 설화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소설 『한라산』에서, ‘토산당신’과 ‘광정당신’, ‘김녕리의 뱀굴 전설’ 등의 설화를 서사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제주사람들의 강화된 ‘공감유대’와 ‘정동심리(情動心理)’를 드러내는 서사기법으로 차용하고 있다. 그 심리란 곧 타자성과 저항성으로 제주 4.3사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28)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719.

29) 현길언, 『한라산 2』, 앞의 책, p.271.

3. 영웅탄생의 간절함과 좌절감

이청준의 소설은 떠남과 돌아옴, 탐색형 인물설정과 서사전개, 신화적 상상력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장편소설 『신화를 삼킨 섬』에는 ‘아기장수 전설’, ‘김통정과 김방경 이야기’, ‘뱀신앙’, ‘영개울람’, ‘본풀이’ 등 제주도의 설화가 작품의 서사 전개와 맞물려 서술되고 있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작가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아기장수 설화’를 배치하는 액자형 서사구조를 택하고 있다. 아기장수 설화는 내부의 이야기와 유기적 서사구조를 이룸으로써 내용과 주제를 선명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기장수 설화의 상징적 전언에 주목하게 된다. 아기장수 설화는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고단한 삶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민중의 소망, 왕권의 신성성 등 다양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탄생, 경이적 사실의 발견, 위기, 해결의 서사구조를 갖는 아기장수형 설화는 제주에서는 전승과정에서 내용이 변이, 첨삭되어 제주도 구성원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㉞옛날 왕조시절에 가난하고 나이 먹은 부부가 치성 끝에 옥동자를 낳음.
 ㉞아기가 두 어깨죽지 밑에 접힌 날개를 달고 있음. ㉞부모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아이를 죽이기로 함. ㉞산신령이 아이를 바위에 묻어 줄 것을 현몽함. ㉞세 자루의 곡식 부대와 함께 바위 속에 아기를 묻음. ㉞관군들이 아이를 잡으러 무덤에 찾아 감.³⁰⁾ ㉞말이 세 번 울자 바위가 갈라지고 관군에 의해 아이가 죽임을 당함. ㉞용마가 하늘로 비상하고 사람들은 아기장수도 용마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음. ㉞사람들은 끝내 이 이야기를 잊지 못했고 언제부턴지 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림.³¹⁾

평민의 아이로 태어난 아기가 어깨죽지 밑에 날개가 달린 것은 신이한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영웅탄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죽음을 극복하고 관군에게 죽는다는 것은 생명력의 강인함을 의미

30)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앞의 책, pp.13~15.

31)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2』, 앞의 책, pp.203~205.

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영웅탄생의 간절한 바람과 그 좌절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장수와 용마의 탄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재생한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그 구세의 영웅 이야기를 잊지 못했고, 언제부턴지 그 아기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³²⁾고 덧붙여 서술한다. 이는 곧 ‘소문으로서의 문학’이 지난한 시련 속에서도 제주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준 중요한 힘이었다는 현길언의 발화와 맥을 같이한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는 ‘김통정 장군’과 ‘김방경 장군’ 설화³³⁾가 서사전개에 차용되고 있다. 지렁이와 양쪽 겨드랑이 날개 탄생의 신화소를 갖고 있는 김통정 장군 설화는 그의 영웅성이 전설화 되어 서안포의 한 마을에 당신으로 자리한다.

삼별초의 장수로 육지에서 관군에 패퇴하여 제주에 건너 온 김통정은 세금을 돈이 아닌 잿가루와 빗자루로 거둬들여 이를 이용하여 관군을 물리치는 영웅으로 서사화 되어 있다. 그러나 김방경에 의해 삼별초가 무너지고 김통정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김방경이 영웅화 되어 안덕고을의 당신으로 모셔지고 ‘본향당신 본풀이’ 사설 속에 신화화 된다. 김통정과 김방경의 변신모티프를 활용한 대결양상은 ‘하백과 해모수 설화’를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김통정의 영웅서사시적 내용이 김방경으로 환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작가는 “김통정 장군의 무훈담과 불행한 좌절은 바로 긴 세월 쫓기고 억눌리며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 자신의 소망과 비원의 표현”³⁴⁾으로 수용한다. 그럼에도 이는 제주도 사람들의 의식과 정서의 한 측면이지 전부가 아님을 설화는 보여준다. 김통정 장군의 의로운 거사나 섬사람들과의 동질적 좌절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김통정은 또 다른 부류의 섬사람들이 내세운 김방경에 의

32)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2』, 앞의 책, p.205.

33)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앞의 책, pp.187~194.

34)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앞의 책, p.195.

해 배척당한다. 작가는 이 섬에 대립과 갈등이 공존하는 이유는 이들이 ‘외래 지배자’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통정의 권력정치가 섬사람들의 아기장수에 대한 꿈을 좌절시켰고 김방경 장군을 내세워 영웅화 시키고 당신으로 모셨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그 또한 김통정을 부인하고 김방경을 받드는 선택적 갈등이 아니라, 김방경 역시도 함께 부인당해야 할 양비론적 대립의 길”³⁵⁾이었던 것은 외래 장수로서 섬사람들의 지배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래 권력과 지배자에 대한 전면적 부정의 정서는 큰당집에서 주도하는 ‘역사 씻기기 사업’에 대한 섬사람들의 반응과도 일치한다. 제주섬을 대표하는 추심방과 변심방의 큰 당집을 대표하는 유정남과 조복순에 대한 반응, 청죽회와 한얼회의 위령굿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는 “이 섬과는 상관없는 육지부 세력과 그를 대신하고 나선 일부 섬 유력자들의 제 편 힘 불리기 놀음”으로 인식한 결과의 반응이다. 작중인물 고종민의 발화처럼 “권력놀음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이곳 한국에서도 저주스런 비극이자 희극.”³⁶⁾으로 재연되고 있음을 본다. 소설 『신화를 삼킨 섬』에서 발견되는 설화의 차용은 제주사람들의 장수와 용마탄생에 대한 그리움과 좌절감 그리고 지배 권력에 대한 부정의 정서를 반영하는 문학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III. 모순의 역사, 타자화 된 삶

제주 4.3장편소설의 장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한반도 정세 및 이념의 갈등과 항쟁의 실상, 제주도 고유의 문화와 정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기에서 고찰한 장편소설들은 설화 차용방식에 차이가 있듯, 작가의식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상이하다.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은 제주사람들의 타자의식, 이념의 갈등, 4.3사건의 비극성, 한국의 대미 관계, 항일의식 등을 성찰할 수 있는 소설이다. “우리

35)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앞의 책, p.197.

36)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2』, 앞의 책, p.182.

들은, 섬무지렁이 주제에 완전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³⁷⁾, “우리 땅은 우리가 살아야, 경현디.”³⁸⁾라는 작중인물 이덕구와 김순덕의 발화는 작가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준다. 즉, 제주사람들이 지닌 타자로부터의 독립의지가 4.3사건 발생의 주요 동기였음을 이야기 한다. 여기서 ‘타자’란 제주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외세와 권력을 포괄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대동아 말기 일제의 공출,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횡포, 미군정청의 제주도 점령, 민보단과 대청단원, 토벌대의 무자비한 살육 등이 제주를 잠들 수 없는 비극의 땅이 되게 했음을 고발한다. 특히 작가는 제주 민중항쟁이 “들불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 봉기한 것이지, 결코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서가 아님”³⁹⁾을 강조한다. 이는 제주 4.3사건이 모순의 역사, 타자화 된 삶을 제주사람들 스스로 극복하고자 했던 자연발생적 힘의 유효이었음을 말해준다. 제주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작가 또는 제주사람들이 희원하는, 그리고 간원했던 삶이다.

현길언의 『한라산 1·2·3』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제주 상황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소설은 남북 이념의 대립 보다는 전후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에 억압당하고 소외되던 제주의 정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가는 제주도 설화의 서사적 차용을 통해 역사적으로 제주도가 ‘타자화 된 섬’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제주에는 진보주의 사상가들이 다수 활동하여 왔음을 설명한다. 무정부주의 청년단체인 ‘우리계(宇利契), 대판 교포 중심의 자주운항 운동, 제주 아체이카의 조직 활동, 세화리 해녀의 저항운동, 사회주의자 중심의 농어민 권익옹호 운동, 군국주의에 대한 저항세력 등이 그것이다.⁴⁰⁾ 4.3사건 발생 직후에도 “제주의 역사는 제주 밖의 상황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게”⁴¹⁾ 되자 진보의식을 가진 제주사람들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매진하게 된다. 작가는

37)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상』, 앞의 책 p.10.

38)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상』, 앞의 책 p.213.

39)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상』, 앞의 책 p.407.

40) 현길언, 『한라산 1』, 앞의 책, p.240.

41) 현길언, 『한라산 1』, 앞의 책, p.164.

작중인물 김상구, 안세훈, 조탁기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군정반대, 사회주의 운동이 사상의 문제이기보다 제주, 더 나아가 민족의 주권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본다.

이청준은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 섬 역사에서 보면 자신이 어느 쪽 권력권에 서려했든지 결국은 이 섬 전체가 국가권력의 한 희생단위로 처분”⁴²⁾ 되곤 했음을 이야기 한다. 곧 제주와 제주사람들의 역사 또는 물로부터의 타자화를 말함이다. 그러기에 국가 주도의 ‘역사 씻기기’ 사업에도 제주도 사람들의 태도는 비협조적이다. 1979년 12.12사건 이후 군부세력의 계엄통치와 재야 민주 세력의 민주화운동이 전개 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권력과 이념의 상술이 모순의 역사를 낳았음을 비판한다.

한 국가나 역사의 이념은, 실은 그 권력과 이념의 상술은 항상 내일への 꿈을 내세워 오늘의 탐과 희생을 요구하고, 그 꿈과 희생의 노래 목록 속에 오늘 자신의 성취를 이뤄가지만, 오늘의 자리가 없는 인민의 꿈은 언제까지나 그 성취가 내일로 내일로 다시 연기되어 가는 불가항력 같은 마술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없지요. 국가의 본질이 그렇고 이 섬의 운명이 그럴진대 어느 누가 친체제 반체제 혹은 친정권 반정권 어느 쪽에 서느냐는 결국 별 뜻이 없는 거겠지요.⁴³⁾

민중의 꿈과 기다림이 없는 삶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소외감을 갖게 한다.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반복되었던 제주사람들의 좌절된 꿈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아기장수나 용마의 희망에 속지 않게 만든 것이다.

IV. 결론

문학은 역사가 간과한 사실성과 정직성을 복원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지배 이념의 폭력으로 역사의 진실성이 은폐된 시기를 서사화 할

42)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2』, 앞의 책 p.77.

43)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2』, 앞의 책 p.78.

때, 문학적 사명은 더 진지해진다. 제주 4.3소설은 역사가 기술할 수 있는 사실성의 뒤편 외에 민중들이 경험해야 했던 삶의 소리들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하는 또 다른 뒤편을 이행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학의 역할에 주시하면서 제주 4.3사건을 소재로 한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 현길언의 『한라산』,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고찰하였다.

이들 소설들은 서사전개에 제주설화를 부분, 또는 전체 차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길언은 『한라산』에서 ‘소문으로서의 문학’이 제주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준 중요한 힘이었음을 이야기 한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설화로 재구성하여 비극을 희망으로 전환시킨 제주사람들에게서 삶의 건강성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토산당신’과 ‘광정당신’ 설화를 부분적으로 서사전개에 참여시킨다. 작가는 ‘토산당신’을 통하여 한 많은 제주사람들의 모습을, ‘광정당신’의 내력담을 통해 권력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저항의식을 보여준다.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아기장수설화’의 내용 전체를 배치하는 액자형 서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제주사람들의 의식으로 자리한 영웅탄생의 간절함과 좌절감을 드러내는 효과를 보인다. 또한, ‘김통정 장군’과 ‘김방경 설화’를 긴 세월 쫓기고 억눌리며 살아 온 제주도 사람들 자신의 소망과 비원의 표현으로 수용한다.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은 ‘아기장수설화’, ‘설문데할망설화’, ‘광정당설화’를 서사전개에 참여시킨다. 이들 설화는 강인성과 비범성을 갖춘 작중인물을 창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신화는 동일성의 느낌에서 출발하여 감정의 통일을 주며, ‘감정’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의 발화는 작가들이 설화를 문학기제로 활용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신화는 지적 과정이 구체적인 상(像)으로 표현된 정동, 즉 실생활의 반영이다. 제주사람들의 내면의식 깊숙이 축적되었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설화 속의 신 또는 영웅으로 표상되어 의미화 된 것이다. 이는 제주 사람들의 ‘공감’을 공고하게 하고 내부적인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유기체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제주 4.3소설에 수용되고 있는 제주 설화의 차용은 제주인들의 의식과 특성, 그리고 타자의식을

드러내는 유용한 문학 기제로 선택된다.

본고에서 고찰한 소설들은 제주 4.3사건을 통해 모순의 역사 속에서 비운의 삶을 살아 온 제주사람들, 타자화 되었던 섬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을 보여준다. 그것이 곧 우리 민족의 지난한 삶이었음을 이야기하며 비극적인 역사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적 사건 특히, 비극의 사실성을 온전히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4.3사건을 허구화 할 때 문학이 지닌 역사의 몫은 회석 된다. 그러기에 ‘인간의 정직성’을 토대로 ‘역사의 사실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4.3문학이 가야 할 지표가 된다.

○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상·중·하』, 한길사, 1991.
 현길언, 『한라산 1·2·3』, 문학과 지성사, 1995.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2』, 열림원, 2003.

2. 단행본 및 논문

- 강영기, 「4.3시의 의미흐름과 문학적 형상화」, 『영주어문』 제9집, 영주어문학회, 2005.
 김동윤, 「4.3소설의 전개양상」, 『탐라문화』 19호, 탐라문화연구소, 1998.
 김동윤,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 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김동윤, 「현길언 소설의 제주설화 수용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 제3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고명철, 「4.3문학의 갱신을 위한 세 시각」, 『한민족문화연구』 제25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고명철, 「4.3소설의 현재적 좌표」, 『반교어문연구』 제14집, 반교어문학회, 2002.
 고명철, 「4.3문학비평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제주도연구』 제19집, 제주학회, 2001.
 문혜원, 「4.3을 소재로 한 시들의 유형과 특징」, 『제주도연구』 19권, 제주학회, 2001.
 박미선, 「김석범문학의 4.3 대응방법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5집, 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 2002.
 박찬식, 「4.3의 공적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4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양정심, 『제주 4.3투쟁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논문, 2006.

- 이명원, 「4.3과 제주 방언의 의미작용」, 『제주도연구』 19집, 제주학회, 2001.
- 이정석, 「제주 4.3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어문학』 제102집, 한국어문학회, 2008.
- 양문규, 「현기영론」, 『현대문학의 연구』 1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 연남경, 「집단학살의 기억과 서사적 대응」, 『현대소설연구』 제46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 에른스트 캣시러, 『국가의 신화』, 서광사, 1988.
- 정선태, 「표준어의 집령, 지역어의 내부 식민지화」, 『어문학논총』 제27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8.
-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
- 제주작가회의, 「4.3을 넘어서는 4.3문학」, 『제주작가』 제33호, 2011. 여름.
- 최문규(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서정일(역), 『문학과 역사』, 예림기획, 2000.
- 현길언,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17집, 한국언어문학회, 1979.

- 이 논문은 2012년 1월 30일 접수되고
2012년 3월 13일 심사완료되어
2012년 3월 1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K C I

Abstract

A Study on Novels based on the 4.3 Incident in
Jeju Island

Dae-young, Lee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novels based on an incidents on 4. 3 in Jeju Island. 『*Hanlasanwui Noul*』 written by Han Lim-Hwa, 『*Hanlasan*』 whose writer is Hyeon Gil-Eon, and 『*Shinhwarul Samkin Seom*』 told by Lee Cheong-Jun were chosen as the texts. Literature, history, how to form reality to literary value, and writers' mind were studied through the reflection of each author's different views on the same incident.

This paper aims to find out how to approach to the historical facts by utilizing the literary figment, what the narrative is being used for the realistic effect, and what the different aspects of each novel are.

These novels show the fact that Jeju Island's tale is being used as the narrative dialogue partially or on the whole. Hyeon Gil-Eon, a writer of 『*Hanlasan*』, points out that 'literature as rumors' has been taking an important role in holding people's lives of Jeju Island. The author is recognizing story as not only a simple type of story orally handed down, but also a reality of life representing Jeju people's real lives facing the historical situation. Thus, the background showing historical meaning such as 'Tosandangshin' and 'Gwangjeongdangshin' is being partially inserted to the whole narratives.

In 『*Shinhwarul Samkin Seom*』 written by Lee Cheong-Jun, the framed narrative form is being accepted by 'Agijangsoo Seolhwa' in prologue and epilogue. This form affected on the story by showing people's strong desire and frustration on the birth of the hero. Also, 'Kimtongjeong Janggun' and 'Kimbanggyeong Seolhwa' were being inserted so as to express their hope and earnest prayer strongly implying the pursued and pressured people's hard feeling. 『*Hanlasanwui Noul*』 by Han Lim-Hwa borrowed 'Agijangsoo Seolhwa', 'Seolmundaehalmang Seohwa' and 'Gwangjeongdang Seolhwa'. These stories is being used to create the characters with strong mind and remarkableness.

These novels have some common interests in recognizing the 4. 3 incident in Jeju Island as a paradoxical history and in seeing people's lives in that island as being otherness. The different points are however shown at the same time. Han Lim-Hwa looks into the process of Jeju people's resistance and its tragedy. Hyeon Gil-Eon, a novelist of 『*Hanlasan*』 points out Korea's political situation right after the 2nd World War and absurdity of militarism. And 『*Shinhwarul Samkin Seom*』 written by Lee Cheong-Jun shows different aspect from other authors through Jeju people's sorrow and resentment as well as being otherness.

Key Words : April 3's Incident of Jeju Island, Narratives, Being otherness, Agijangsoo Seolhwa